

수형자 창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한수* · 이종만**

The Study of Problems and Improvement on Inmate's Entrepreneurship Education

Park, Han Soo · Lee, Jong Man

〈Abstract〉

Inmate's correc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s has contributed to reducing the recurrence of crimes so that the general citizens can be freer from crimes, playing the roles of crime prevention and shield for the society.

This paper investigates satisfaction about entrepreneurship education of Inmate's because do questionnaire deduce problem and presented improvement plans.

Improvement plans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of Inmate's are presented: 1. Enforce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bout definite education subject person, 2. Education enforcement by special quality of education subject person, 3. Increas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cess, 4. Released convict settled successfully in society. real entrepreneurship speaker practical use etc.

Key Words : Venture Management, Correctional Education, Ventur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 서론

현대 사회의 모든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범죄의 양적인 증가, 범죄유형의 다양화·지능화·전문화·포악화·조직화하는 경향으로 크나큰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모든 국가의 사회문제인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처단적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재판·교정·보호 등의 형사사법작용의 마무리 단계로서 교정의 중요성 높아지고 있다.

범죄자의 격리구금과 교정교화활동을 통해 사회의 안

녕질서와 재범방지의 최종적인 보루를 담당하는 교정업무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그 피해는 다시 선량한 일반 시민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므로 교정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와 그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망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출소 후 직업의 안정 또는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기반 마련은 재범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의 출소 후 직업의 안정 또는 생활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시행되고 있는 수형자 대상의 창업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 한국국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주저자)

**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교신저자)

II. 이론적 배경

2.1 교정복지 및 교정교육

2.1.1 교정복지, 교정교육의 개념 및 목적

교정은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범죄인의 범죄성향을 바로잡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1]. 다시 말하자면 교정이란 잘못된 생각과 비뚤어진 행동과 습관을 고쳐서 올바르게 잡는 일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좋은 행동과 바람직한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일을 의미한다[2]. 교정시설에서 범죄인을 재활시키기 위하여 관여한 제반업무를 교정사업이라고 하는데 범죄인 또는 비행자를 교화·개선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한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를 교화·개선의 측면에서 보면 교정활동이고 사회복귀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활이 되는데, 교정과 갱생보호를 합한 개념이다[3].

교정복지는 사회복지학을 바탕으로 한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 및 비행과 범죄의 예방에 중점을 둔 사회복지실천을 의미하는데[1] 교정복지의 개념은 최협의, 협의, 광의 그리고 최광의 의미로 볼 수 있다[4]. 최협의의 의미로는 교도소·구치소 등의 교정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처우를 말한다. 협의로는 교정시설과 소년원, 분류심사원등의 보호시설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복지처우를 말하며, 광의의 의미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복지처우를 말한다. 그리고 최광의의 의미는 경찰·검찰·법원·교정기관 등의 형사사법기관과 모든 공사시설에서 범죄방지·예방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정복지 처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교정복지는 광의의 의미로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로 구분하고 있으나 최광의의 개념으로 교정복지를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4].

교정복지는 다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5].

첫째,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것으로,

심리·사회적서비스나 환경개선을 통해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정사회사업의 주된 기능이다.

둘째, 범죄인의 특정질병이나 장애치료에 대한 협력을 제공한다.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의 재활에 교정복지 전문가가 개입하여 이들의 치료를 직·간접적으로 돕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셋째, 보호관찰·갱생보호기관과의 협력기능이다.

넷째, 범죄인의 가족에 대한 원조기능이다. 갈등적 가족관계, 낮은 경제수준, 범죄인 가족이라는 낙인 등 범죄인 가족과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조정하고, 범죄인과 가족 혹은 주변인과의 유대관계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정의 목표를 살펴보면 수형자를 교정·교화하여 사회에서 재범에 이르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형자의 교정교육이란 교도소에 있어서 수형자의 사회적응성을 높이고 수형자의 반사회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 반도덕성을 자주적으로 극복시켜 재범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갱생시키는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6]. 다시 말해서 교정교육이란 교정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교정시설에 있어서 수형자의 교화개선과 사회적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을 일컫는 말로서 협의의 교육, 교회, 직업훈련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교육이란 수형자의 인격도야, 지능개발 등과 같은 교육을 말한다. 그리고 교회란 수형자를 선량한 사회일원으로 갱생시키기 위하여 덕성을 함양하고 정신감화를 함으로써 인격도야의 개관천선을 촉진하려는 교회의 수단을 말한다. 또한 직업훈련은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형자직업능력개발훈련규정에 의하면 출소 후 취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목적은 형사정책적, 경제사회적 그리고 교정시설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 형사정책적 측면에서의 직업훈련은 교화개선적

목적과 사회복귀적 목적으로 나누어진다. 교화개선적 목적은 수형자에게 규칙적인 일과를 부여함으로써 근로 정신을 고취하고 의존심과 악습을 교정해보자는 것이고, 사회복귀적 목적은 수형자의 적성, 취미, 희망 등에 적합한 기능을 습득·연마케 함으로써 출소 후 안정된 생업에의 종사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영위와 재범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경제사회적 측면에서의 직업훈련은 수형자를 1인1기의 기능인력으로 양성해 냄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에 필요한 인력수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무기능의 유희노동력을 유효인력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교정시설 관리적 측면에서의 직업훈련은 수형자를 직업훈련이라고 하는 일정한 테두리 내에서 생활하게 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와 규율확립 즉, 행형적 목적으로 통한다.

그런데 직업훈련의 실시를 통해 형사정책적 효과로서의 긍정적인 변화로, 첫째,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인가 획득을 위해 교정당국의 노력과 투자는 사회의 직업훈련기관에 접근하는 훈련조건 내실화를 이루었다는 점, 둘째, 일반사회에서 선호하는 직종을 훈련시킬 수 있고 국가공인 기능자격의 취득이 수반됨으로써 사회복귀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셋째, 직업훈련에 관한 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해짐으로써 사회로부터의 폭넓은 참여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반면에 대상이 수형자라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사회의 직업훈련기관과 경쟁적으로 기능자격 취득 위주의 훈련지도에 중점을 두어 출소 후 구직을 위해 필요한 직업인으로서의 소양과 기술습득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이다[8].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에는 더욱 그렇다[9]. 교정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교정교육은 수형자 개개인의 심리적·행동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범죄성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돕는 것이다. 즉 교정교육의 목적은 수형자의 범죄성을

비범죄적인 방향으로 인도하여 수형자가 보다 건전한 생활태도와 선량한 시민으로 치신하려는 의지와 그들의 가족에게 정당한 노동에 의해 부양하는 상당한 기회를 가지도록 지식과 기능을 갖추어 되돌아가게 하는데 있다 [4].

2.1.2 수형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교정본부의 업무 중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재범방지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0].

첫째, 수형자 분류시스템의 과학화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경비등급별 분류처우제도 정착, 분류전담시설 지정·운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등을 포함한다.

둘째, 수용환경 및 수용자 처우개선 프로그램으로서 교정시설의 현대화·자동화, 수용자 의료처우 환경의 개선, 작업장려금 현실화 추진(취사부 등) 등을 포함한다.

셋째, 교정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로서 이는 성폭력사범 교정심리치료센터 설립운영, 마약류 사범의 치료 및 재활교육 강화, 장기수형자 가족관계 유지 회복프로그램 시행, 자치제 전담 신개념 교도소 운영, 미디어 활용 범질서 함양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포함한다.

넷째, 사회복귀적 처우의 확대 프로그램으로서 이는 취업연계형 교도작업 운영과 출소예정자 취업 및 창업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먼저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의 운영은 현행 단순노동형 교도작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기업유치를 통해 구의공장을 육성하여 단계적으로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소예정자 취업·창업지원 강화 프로그램은 지역고용센터와 교정기관이 협력하여 출소예정자의 정기적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출소예정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시행, 공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활용한 취업알선 등을 포함한다.

2.2 수형자 창업교육

2.2.1 창업 및 창업교육의 의의

창업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업을 새로이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창업에 대한 정의는 논자들 간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창업이란 제조업, 판매업, 건축업,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 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법, 기계 및 장비임대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11].

창업교육은 미래의 창업자를 위한 창업 관련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용자 입장에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12]. 창업교육의 목표는 창업에 필요한 적합한 지식의 획득, 기업 상황의 분석과 실행계획을 종합하는데 필요한 기법 및 사용기술의 획득 그리고 창업의지의 개발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13].

2.2.2 수형자 창업교육의 필요성

수형자들이 출소를 앞두고 할 수 있는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로는 경제적 지위의 회복, 기반마련을 위한 취업 내지 구직 준비 노력, 사회적 관계회복을 위한 심리적 준비 및 장애요소에 대한 정확한 인식, 가족관계의 회복 등을 들 수 있다. 즉, 출소 후 직업의 안정 또는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기반마련은 재범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범죄가 행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조건 충족이 재범을 안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기반마련이 재범에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된다고 할 것이다[14]. 창업을 위한 역량들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어 창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13].

특히, 상당수 수형자들의 경제적 빈곤은 범죄현상을 밝혀주는 절대적 요인이 될 수는 없으나 재범과 관련한 중요 요인임에는 틀림없다[15].

수형자들이 출소를 하게 되면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직은 용이하지만은 않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전과자에 대한 편견과 배척의 태도가 존재하고 있고, 특히 기업체의 경우 신원확인 작업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과자에 대한 취업상 차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태도는 전과자를 재범의 길로 이끄는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2.2.3 수형자의 출소 전 구직의식

수형자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형자들의 출소 전 구직의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는 수형자들의 출소 후 직업의 안정 또는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기반마련 방법은 크게 구직 혹은 창업을 통한 방법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수형자들은 출소 후 생활준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생계와 관련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생활여건이 마련되지 못하면 다시 범죄의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범죄의 주된 이유는 아니겠지만 일단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제생활의 기반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형자들에게 있어서 출소 후 생활기반의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수형자들의 직업훈련에 대한 의식, 구직을 위한 노력의 유형, 구직이 불가능할 시 노력유형, 출소 후 생계유지방법, 취직의 재범예방에의 도움에 대한 의식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4].

첫째, 수형자들은 교도소내의 직업훈련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 교도소내의 직업훈련은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실적위주의 직업훈련제도를 운영하여 현장과의 연계부족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고,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건전한 경제관 형성에 소홀하여 출소 후 취업을 했다하더라도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재범의 위험이 있으며[16],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출소자와 직업훈련을 수료 한 후 출소자의 재범역을 비교에서도 수형자들의 관리·감독을 위한 형식적인 프로그램의 적용을 알 수 있다[16].

<표 1> 출소자 유형별 재범역을 현황

구분	연도			
	2003	2004	2005	2006
일반출소자	23.1	22.7	22.4	22.5
직업훈련 수료출소자	22.8	22.6	21.5	22.1

주: 출소자의 재범역을 통계는 출소 후 4년 후에 계산되므로, 2010년에는 2006년 출소자의 재범역을 산출하였음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수형자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2010, p. 29.

수형자들이 사회복지를 위한 취업준비에 있어서 입소 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 또는 출소 후 교육계획에 의존하고자 한다는 것은 교도소 내에서 습득 가능한 기술이나 직업훈련 등이 교도소 내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고 노동습관을 익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에 있어서는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출소 후 구직을 위한 노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업체의 경우 신원확인 작업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과자에 대한 취업상 차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출소 후 구직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본인의 경제력이 뒷받침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1년 출소 전 수형자의 의식조사 자료에 의하면 수형자들의 출소 후 구직을 위한 노력의 유형은 입소전의 보유기술을 이용이 4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기술을 배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수형자가 31.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구직 시 필요한 경제력 보유여부에 대해 약 41.5%가 경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셋째, 출소 후 구직 불가능 시 노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수형자들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년 자료에 의하면 구직 불가능시 노력의 유형에서 76.3%만이 합법적인 일자리 구할 때 까지 노력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정도는 잠재적인 재범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16]. 또한 수형자들의 출소 후 생계유지 방법에 대한 조사에서 취직이 41.2%, 부모 또는 처자식의 도움이 25.1%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이 재범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수형자들의 비율이 88.4%로 나타나 취업교육이 범죄예방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2.3 수형자 취업·창업지원

2.3.1 수형자 취업·창업지원 내용

출소에정자의 원활한 사회복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출소 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법무부는 출소자의 취업·창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7].

첫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지원체계이다. 출소(예정)자 즉, 출소에 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간 내의 수형자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법무부 추천자는 참여가능하다.

둘째, 고용촉진지원제도로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셋째, 사회적 기업제도로서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넷째,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는 구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의욕고취 및 취업지원 능력 향상을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특강 등은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 희망 일자리 프로그램은 고용센터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구인·구직의 날 행사로서 고용센터 내 시설을 활용하여 2~5개의 중소기업과 직접면접의 장을 제공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소규모 행사를 통해 실질적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4개 지방교정청(소속 교정기관)이 주관하고, 취업의욕이 강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행사 당일 가석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여섯째, 국내 최대 취업포털인 고용안전정보망(Work-net)을 활용하여 구직자(출소예정자)에게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이 그 목적이다.

2.3.2 수형자 취업·창업지원 업무 지침

법무부에서는 수형자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지침을 2009. 10. 1. 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8].

첫째, 조직을 살펴보면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협의회와 법무부 수형자 취업정책 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둘째, 교도소장은 수형자 취업·창업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취업·창업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한다.

셋째, 취업·창업교육 관련 지침을 살펴보면 특히 취업·창업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정행정정보시스템의 취업·창업지원 전담반 활동사항 란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 대상자 선정 및 교육 지침을 살펴보면 ① 잔형기 3개월 미만 수형자, ② 잔형기 3개월 이상인자로 교육을 희망하는 자 중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형자, ③ 교육회수는 소장이 교육의 필요와 효과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이어야 하며 취업·창업과 관련한 상담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 및 평가지침으로는 ① 취업·창업 관련 기본 정보 및 자료, ② 취업지원 시스템 및 기관 소개, ③ 외부 전문가의 취업·창업 관련 강의 또는 컨설팅, ④ 취업·창업 성공사례 소개, ⑤ 건전한 직업의식,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취업·창업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강사로는 ① 외부강사로서 전문강사, 유관기관 임직원, 대학교수, 취업협의회 위원, 사회복지도우미 등과 내부강사로서 취업전담반 직원 또는 취업·창업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 등이 담당할 수 있다[18].

III. 수형자 창업교육 현황

3.1 표본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해 2010년 10월~2011년 6월에 걸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대상은 J시에 소재하는 J 교도소의 만기출소 한 달 전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최종 조사된 설문매수는 48매였으나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모두 42부이다. 조사는 수형자들의 일반적 특성(연령, 학력, 결혼, 재산정도, 직업, 전과, 범죄유형, 가족 수, 수형기간 등)에 따른 창업교육의 만족도, 창업교육의 창업에의 활용가능성, 창업의향에 관해 Likert의 5점 척도를 이용해 조사하여 t검정, ANOVA를 실시하였다.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에서와 같이 연령은 30대 이하가 34.9%, 40대 이상이 65.1%였고, 학력은 고졸이하가 74.5%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74.4%가 기혼자였다. 경제상황은 중하가 90.7%, 재산은 3,000만원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내용	항목	빈도 (%)	내용	항목	빈도 (%)
연령	20대	7 (16.3)	재산 정도	3,000만원 미만	27 (62.8)
	30대	8 (18.6)		3,000~5,000만원 미만	3 (7.0)
	40대	11 (25.6)		5,000~1억원 미만	6 (14.0)
	50대	11 (25.6)		1억~2억원 미만	2 (4.7)
	60대 이상	6 (14.0)		2억원 이상	3 (7.0)
				무응답	1 (4.7)
학력	초졸	3 (7.0)	범죄 유형	절도	7 (16.3)
	중졸	7 (16.3)		폭력	5 (11.6)
	고졸	22 (51.2)		성범죄	5 (11.6)
	전문대졸	4 (9.3)		강도상해	2 (4.7)
	대졸	7 (16.3)		사기	9 (20.9)
				살인	2 (4.7)
생활 정도	하	14 (32.6)		기타	12 (27.9)
	중하	9 (20.9)		무응답	1 (2.3)
	중	16 (37.2)	수형 기간	1년 미만	10 (23.3)
	중상	3 (7.0)		1년~2년 미만	10 (23.3)
	상	1 (2.3)		2년~3년 미만	14 (32.6)
		3년~5년 미만		5 (11.6)	
		5년 이상		4 (9.3)	
직업	무직	4 (9.3)	가족 수	0	3 (7.0)
	농업	3 (7.0)		1	5 (11.6)
	상업	4 (9.3)		2	13 (30.2)
	제조업	4 (9.3)		3	12 (27.9)
	회사원	4 (9.3)		4	6 (14.0)
	공무원	2 (4.7)		5	3 (7.0)
	기타	21 (48.8)	6	1 (2.3)	
	무응답	1 (2.3)	결혼 여부	유	32 (74.4)
		무		11 (25.6)	
전과	초범	25 (58.1)	내용	항목	빈도 (%)
	2범	7 (16.3)	창업 교육의 활용 여부	전혀 도움이 안된다	1 (2.3)
	3범	3 (7.0)		도움이 안된다	4 (9.3)
	4범 이상	7 (16.3)		보통이다	14 (32.6)
	무응답	1 (2.3)		도움이 된다	15 (34.9)
		매우 도움이 된다		6 (14.0)	
		무응답		3 (7.0)	
내용	항목	빈도 (%)	출소 후 창업의 의향	전혀 아니다	3 (7.0)
	유	20 (46.5)		아니다	4 (9.3)
	무	20 (46.5)		보통이다	16 (37.2)
	무응답	3 (7.0)		그렇다	11 (25.6)
				매우 그렇다	8 (18.6)
		무응답		1 (2.3)	
복귀 후 직업의 유무	유	20 (46.5)	창업 시 필요 사항	창업자금	19 (44.2)
	무	20 (46.5)		창업아이템	9 (20.9)
창업교육 이수여부	유	16 (37.2)		창업기술	8 (18.6)
	무	27 (62.8)		기타	7 (16.3)
창업교육이수 이유	창업을 위해	11 (68.8)		창업 교육 만족 정도	매우 불만족
	동료나 직원의 권유로	2 (12.5)	불만족		2 (4.7)
	그냥 심심해서	0 (0.0)	보통이다		23 (53.5)
	기타	3 (18.7)	만족		12 (27.9)
	합계	16 (100.0)	매우만족		3 (7.0)
			무응답		1 (2.3)
창업교육 이수하지 않은 이유	출소 후 직업이 있으므로	7 (25.9)			
	직업은 없으나 창업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5 (18.5)			
	창업교육의 실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2 (7.4)			
	기타	10 (37.0)			
	합계	27 (100.0)			
창업교육개선점	강사	5 (11.6)			
	교육시간의 부족	8 (18.6)			
	창업교육과정 증설	13 (30.2)			
	기타	10 (23.3)			
	무응답	7 (16.3)			

이하가 62.8%를 차지하였다. 전과는 초범이 58.1%, 수형 기간은 2년 이하가 46.6%를 차지하였다.

3.3. 실증분석 결과

3.3.1 창업교육의 만족도 분석

현재 법무부의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의해 교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교육의 만족도를 조

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 특성에서 보듯이 수형자들의 창업교육의 만족정도는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비율이 9.4%, 보통, 만족, 매우 만족으로 나타난 비율이 88.4%로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3.3.2 창업의향 분석

사회복귀 후 창업할 의향에 대한 설문에 그렇다와 매

<표 3> 창업교육의 만족도 분산분석

영역		제공합	d.f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연령	집단간	2.703	4	0.676	0.897	0.475
	집단내	27.868	37	0.753		
	합계	30.571	41			
학력	집단간	3.539	4	0.885	1.211	0.323
	집단내	27.032	37	0.731		
	합계	30.571	41			
생활상태	집단간	0.902	4	0.225	0.281	0.888
	집단내	29.670	37	0.802		
	합계	30.571	41			
재산정도	집단간	2.345	4	0.586	0.743	0.569
	집단내	27.630	35	0.789		
	합계	29.975	39			
수형기간	집단간	3.216	4	0.804	1.087	0.377
	집단내	27.356	37	0.739		
	합계	30.571	41			
전과	집단간	3.396	3	1.132	1.644	0.196
	집단내	25.482	37	0.689		
	합계	25.878	40			
가족	집단간	4.879	6	0.813	1.108	0.378
	집단내	25.692	35	0.734		
	합계	30.571	41			

<표 5> 사회복귀 후 창업의향 분산분석

		제공합	d.f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연령별	집단간	11.501	4	2.875	2.619	0.050**
	집단내	40.618	37	1.098		
	합계	52.119	41			
학력별	집단간	15.107	4	3.777	3.776	0.011**
	집단내	37.012	37	1.000		
	합계	52.119	41			
생활상태	집단간	4.568	4	1.142	0.889	0.480
	집단내	47.551	37	1.285		
	합계	52.119	41			
재산정도	집단간	4.634	4	1.159	0.906	0.471
	집단내	44.741	35	1.278		
	합계	49.375	39			
수형기간	집단간	1.238	4	0.310	0.225	0.923
	집단내	50.881	37	1.375		
	합계	52.119	41			
전과수	집단간	1.131	3	0.377	0.288	0.833
	집단내	48.381	37	1.308		
	합계	49.512	40			
가족수	집단간	2.638	6	0.440	1.108	0.378
	집단내	49.481	35	1.414		
	합계	52.119	41			

** : p < 0.05

<표 4> 창업교육의 만족도 검정결과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제공	t	유의 확률
사회복귀후 직업유무	유	20	3.150	0.745	0.166	-0.799	0.430	
	무	19	3.368	0.955	0.219			
결혼여부	결혼	31	3.258	0.773	0.138	-0.345	0.732	
	미혼	11	3.363	1.120	0.337			
창업교육 이수여부	유	16	3.312	0.704	0.176	0.156	0.877	
	무	26	3.269	0.961	0.188			

<표 6> 사회복귀 후 창업의향 검정결과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제공	t	유의 확률
사회복귀후 직업유무	유	19	3.578	1.070	0.245	0.620	0.539	
	무	20	3.350	1.225	0.274			
결혼여부	결혼	31	3.516	1.121	0.201	1.077	0.288	
	미혼	11	3.090	1.136	0.342			
창업교육 이수여부	유	16	3.750	1.125	0.281	1.585	0.121	
	무	26	3.192	1.096	0.214			

우 그렇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0대는 42.8%, 30대는 37.5%, 40대는 54.6%, 50대에서는 63.7%, 60대 이상은 0%였다. 학력별로는 초등학교졸업이하는 0%, 중졸은 2.4%, 고졸은 23.8%, 전문대졸이상은 19.0%로 나타났다.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수형자들의 76.2%가 창업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귀 후 창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표 5>에서와 같이 연령별, 학력별로 $p < 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나이가 젊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사회복귀 후 창업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3 창업교육의 활용정도 분석

현재 교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교육의 활용 정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 특성에서 보듯이 수형자들의 창업교육의 활용정도에 대한 설문에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1.6%, 보통이라는 32.6%, 도움이 된다는 48.9%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창업의향이 있는 44.2%의 수형자들에게는 창업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창업의향이 있는 수형자들에게는 현재의 창업교육이 아주 유익한 교육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4 창업교육의 기타 사항

창업교육의 개선점에 대한 설문에서 창업교육과정의 증설이 30.2%로 가장 높고, 교육시간의 부족이 18.6%, 강사에 대한 부분이 11.6%를 차지하였다. 기타사항으로는 23.3%인데 상세한 설명, 현실성 있는 교육 등을 들고 있다. 창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창업요소에 대한 설문에서는 창업자금이 4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창업아이템이 20.9%, 창업기술이 18.6%를 들고 있다.

<표 7> 창업교육의 창업활용정도 분산분석

		계급합	d.f	평균계급	F	유의확률
연령별	집단간	1.914	4	0.479	0.492	0.742
	집단내	34.061	35	0.973		
	합계	35.975	39			
학력별	집단간	3.058	4	0.765	0.813	0.525
	집단내	32.917	35	0.940		
	합계	35.975	39			
생활상태	집단간	4.217	4	1.054	1.162	0.344
	집단내	31.758	35	0.907		
	합계	35.975	39			
재산정도	집단간	4.196	4	1.049	1.132	0.358
	집단내	31.496	34	0.926		
	합계	35.692	38			
수형기간	집단간	5.443	4	1.361	1.560	0.207
	집단내	30.532	35	0.872		
	합계	35.975	39			
전과수	집단간	0.163	3	0.054	0.053	0.983
	집단내	35.581	35	1.017		
	합계	35.744	38			
가족수	집단간	7.083	6	1.180	1.348	0.264
	집단내	28.892	33	0.876		
	합계	35.976	39			

<표 8> 창업교육의 창업활용정도 검정결과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제곱	t	유의확률
사회복귀후 직업유무	유	19	3.578	0.768	0.176	0.254	0.801	
	무	18	3.500	1.098	0.258			
결혼여부	결혼	30	3.600	0.855	0.156	0.852	0.399	
	미혼	10	3.300	1.251	0.395			
창업교육 이수여부	유	15	3.733	0.798	0.206	1.064	0.294	
	무	25	3.400	1.040	0.208			

IV. 수형자 창업교육 개선방안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형자 창업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명확한 교육 대상자에 대한 창업교육의 실시이다. 이는 교육 대상자 선정에서 심층적인 면담, 적성검사 등을 통해 사회복귀 후 창업할 의향이 있는 수형자를 선

발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왜냐하면 설문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복귀 후 창업할 의향이 있는 수형자는 창업교육의 활용정도에서 높은 점수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 대상자의 특성별(연령, 학력 등) 창업교육의 실시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창업교육의 만족도에서 연령별, 학력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소수의 교육대상 인원, 강사 및 강사료, 시설, 시간 등의 교육에 따른 제반 사항의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나 재범을 감소시키는 교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창업교육 과정의 증설이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터넷 쇼핑몰[19] 및 소자본 창업교육 과정의 증설, 교육시간의 확대 실시이다. 수형자가 취업에 용이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소 후 사회에서 바로 취업을 하기는 쉽지 않고 사회에서는 전과자에 대한 편견과 배척의 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체의 경우 신원확인 작업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과자에 대한 취업상 차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출소 후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에 창업이 매우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출소자의 실질적인 창업강사 활용이 검토·실시되어야 한다. 수형자들의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는 수형자의 애로와 심정을 잘 아는 출소자가 창업강사가 실제로 참여하면 수형자의 사회복귀 교육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므로 출소자를 실질적인 창업강사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V. 결론

5.1 결론

출소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출소 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수형자들이 출소를 앞두고 할 수 있는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로는 경제적 지위의 회복, 기반마련을 위한 취업내지 구직 준비 노력, 사회적 관계회복을 위한 심리적 준비 및 장애요소에 대한 정확한 인식, 가족관계의 회복 등을 들 수 있다. 즉, 출소 후 직업의 안정 또는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기반마련은 재범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형자 대상의 창업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으로 1. 명확한 교육 대상자에 대한 창업교육의 실시, 2. 교육 대상자의 특성별 교육실시, 3. 창업교육 과정의 증설, 4.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출소자의 실질적인 창업강사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5.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수단으로서 실시되고 있는 창업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점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들의 가정파탄, 사회로부터의 오래된 격리된 생활, 심신의 피로감, 미래의 불확실 등으로 인하여 설문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조사대상자가 J교도소에 한정된 점과 적은 표본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운 점이 연구의 한계점이라 하겠다.

5.3 향후 연구 방향

향후의 연구는 더 많은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수형자들의 심리상태, 가정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면접, 상담, 설문지법 등을 병행한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최옥채, 교정복지론, 학지사, 서울, 2010.
- [2] 김용구·김재경, “수형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33집, 2009, pp. 381-406.
- [3] 홍봉선, 교정복지론, 현학사, 서울, 2004.
- [4] 김용준, 교정복지학개론, (주)교학사, 서울, 2005.
- [5] 임상록·김성신, “청소년 교정복지를 위한 사회교육 방안,”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7, pp. 71-100.
- [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4.
- [7] 홍성원, “직업훈련 수형자의 e-러닝 도입에 관한 요구분석,” 공주대 교육정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7.
- [8] 문영호·이인순·박강우, 수형자 직업훈련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9] 박종순·이종만, “소비자의 혁신성이 모바일 광고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제6권 제2호, 2010. 6, pp. 209-224.
- [10]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 Vol. 417, 2011. 1.
- [11] 박한수, 소자본창업과 경영, 민영사, 서울, 2010.
- [12] 김주미·오상훈·양재경, 우리나라 창업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창업대학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2008.
- [13] 박재환·김용태, “창업교육 만족도 및 참여동기가 창업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2009, pp. 959-977.
- [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소전 수형자의 의식조사, 2001.
- [15] 김영식·서호영, “수형자 사회복귀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교정연구, 제42호, 2009, pp. 186-187.
- [16] 국회입법조사처, 수형자 대상 사회복귀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2010.
- [17] 법무부 교정본부, 취업·창업지원 업무 매뉴얼,

2011.

- [18] 법무부 예규 제 907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업무 지침, 2009.
- [19] 박종순·이종만, “의류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학생들이 지각한 품질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제5권 제2호, 2009. 6, pp. 185-197.

■ 저자소개 ■



박한수
Park, Han Soo

1994년 3월~현재
한국국제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1999년 2월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영학박사
1985년 2월 계명대학교 경영학석사
1983년 2월 계명대학교 경영학사
관심분야 : 창업경영, 서비스품질, 공급자
E-mail : phs3887@iuk.ac.kr



이종만
Lee, Jong Man

2002년 3월~현재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2003년 8월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영학박사(MIS)
1992년 2월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영학석사(MIS)
1990년 2월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영학사(MIS)
1991년~1997년 동양시스템(주) 대리
1997년~2002년 경북대학 경영과 조교수
관심분야 : 웹접근성, 사이버상담
E-mail : jmlee@iuk.ac.kr

논문접수일 : 2011년 8월 8일
수정일 : 2011년 9월 2일
게재확정일 : 2011년 9월 8일